

1995. 6. 15

은가족이 둘러기며 읽어봅시다.  
주소 변경시에는 연락바랍니다.

## 淳昌趙氏 世居之鄉碑 除幕

길이길이 후손들 가슴마다 뿌리의식을 심어주리...

순창조씨 세거지행비, 제막식이 1995. 4. 1.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소재 칠중사 입구에서 성대히 거행 되었다. 이날 제막식에는 金明珠 괴산 향교 전교, 崔東魯 괴산 유도회장, 金漢根 화양사원장, 李春澤 괴산 문화원장, 金濟植 전 괴산군수, 金得榮 전 단양 부군수, 金煥默 전 괴산 부군수 등 많은 지방 유지와 약 200여명의 일가들이 모여 거행하였다. 제막식은 根植사무국장의 진행으로, 국민연례에이어 敬植 부회장의 비문낭독, 俊善괴산 증진회장 인사, 鑾樂 대종손 격려사, 德善대종회장의 내빈소개 및 치사, 仲濤 증무의 경과보고, 개막테프 절단, 제막 순으로 이어졌다.

세가의 화강암과 한개의 자연석으로 구성된 높이 5m의 웅장한 세거비는 德善 대종회장이 앞장서 선행이되고 행정과 孝善 종친은 훌륭한 자연석을 어렵게 구해서 기꺼이 희사하였으며 기성파 昌善, 탐 敏植과 明柱 종친등 일가 여러분의 정성어린 성금 1925000 원으로 이룩하였다.

이 세거비가 건립됨으로서 종친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대동단결의 계기는 마련되고 후손들 가슴마다 오래오래 뿌리의식을 깊이 심어주며 세상사람들에게는 순창조씨를 이해시키는 초석이 될것으로 확신한다.



### 비 문

순창조씨는 始祖 趙子長이 고려초 淳昌의 戶長을 지내고 代를 이어 승계하여 오다가 고려 명종 7년(1177) 5世 仁平이 계룡산의 도적 亡伊와 亡所伊등을 토벌한 일등공신으로 檢校尉 大將軍에 오르면서 현성으로 등장 하였다. 이때부터 향리를 떠나서 벼슬길에 올라 6世 光明은 門下侍郎 平章事를 역임하고 7世 文晩은 左右衛 大護軍에 이르고 8世 文貞公 韓廉은 藝文館 大提學, 上護軍등을 지내고 9世 淳城君 韓緯은 禮儀 貳 版圖判書를 거쳐 開城府尹, 上護軍 등을 역임하며 세계를 이어 왔다.

槐山, 松坪은 7世 文 琰이 西紀 1280년을 전후해서 자리잡은 이래 700여년간 24대에 걸쳐 世居하여 오면서 우리 門中을 확실한 법족으로 기틀을 잡은 8世 文貞公이 탄생하신 (1293) 곳이며 한편 9世 避世翁 韓紳은 고려가 망하자 이마들로 락향하여 정자를 세워 避世亭이라 현판과 자호하고 일련단심 망국 고려를 연모하여 증실투록 伯夷叔齊의 西山之節을 본받은 충절의 고장이다.

동리 한 가운데는 우리 先祖께서 심고 代대로 가꾸어 온 수령 700년의 은행나무가 우뚝 솟아 옛부터 동리 이름을 은행정이라 불러 오고 오른쪽 韓徽에는 文貞公의 신도비와 文貞公, 淳城君, 避世翁, 10世 進士公 등 3대의 단산소가 가리저리 자리하며 뒷동산에는 11世 司正公, 12世 東萊公, 13世 宣傳公, 14世 松齊公, 15世 參判公 등 5대에 걸친 묘소가 위로부터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 또한 五馬山 기슭에는 避世翁의 不事 二君之忠과 松齊公의 不正之朝에 不仕之節操가 600년 역사의 避世亭과 초야의 몸으로 국난극복에 한몸을 초토와 같이 던져 나라 구하는데 앞장서 공신의 자리에 오른 9世 紳, 12世 偉, 15世 服과 胖 (16世) 德恭 德容 17世 坵 등 일품본 충신의 위패와 현판을 모신 七忠祠가 자리하여 이고장 忠孝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와같이 祖上으로부터 물려 받은 빛나는 전통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리고 더욱 빛나게 가꾸는 것이 後孫들의 도리이건만 변천하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고향마저 점점 잊혀져 가기에 世居地의 약사를 碑에 세기여 여기 세운다.

## 괴산종친회 楊州, 坡州 선조묘 순례 참배

원충과 俊植 종친의 崇祖尙門 정신 높히 평가

지난 4월 10일, 이른 봄날서 따뜻한 이따라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 별로 넘쳐지 못한 형편에 있는 원충과 俊植종친이 해마다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괴산 종친들의 친목의 기회를 마련하여 왔으니 많은것을 가진 사람도 崇祖尙門(송조상문)을 의미하는 현실을 감안할때 높히 평가하고 가상할만 한일이다.

올해에도 예외없이 俊植종친의 주선으로 4월 10일에 양주와 파주지역의 선조묘를 참배 한다는 연락을 받고 종사에 열성파인 楳植사무국장, 기성과 昌善, 풍곡과 文植종친과 같이 약속시간인 9시 30분을 지키려고 아침일찍부터 서둘러 의정부 시청앞 길목에서 2시간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서 백방으로 수소문하다 할일없이 되더라 서려는 순간 12시가 다되어서야 나타나니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울화통이 터진다. 알고보니 도중에서 접촉사고로 목신 각신하다 늦었다니 할말이 없다. 차에 올라 살펴보니 부모의 묘소도 등한시하는 오늘날 멀고 먼길에 아득한 옛 선조의 묘소를 찾아온 80고령의 俊善괴산종친회장, 원충과 泰元씨, 삼고과 鉉周씨 그리고 종사라면 밭벗고 나서는 洪植 전 괴산종친회장, 팔송과 泰允과 昌湜, 송현과 友善과 仲湜 안촌과 昌載 마전과 鍾金과 元湜, 원충과 九湜 과 俊湜, 삼고과 泰勝과 道湜, 昌柱 등 20여명의 정성어린 얼굴을 대하는 순간 모든 불편한 마음은 이슬처럼 사라지고 훈훈한 마음이 감돈다. 그러나 밝지 않은 분위기에 찌그러진 기사아저씨의 인상을 감지한 楳植사무국장이 특유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순식간에 분위기를 잡아가고 이리뛰고 저리뛰며 군과협의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아 일사천리로 순서대로 선조의 묘를 참배하니 모두 만족 하고 보람있는 표정이다. 그럭저럭 해는 서산으로 기울니 늦어질새라 운전기사의 초조함이 역력하다. 서둘러 귀향길을 도속하다 도중에 행주산성에 들려 관광은 뒤로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몇점시의 빈대떡과 몇대의 돼지갈비를 주삼아 높은 항렬의 위력을 심분발휘하여 여러명의 소주를 순식간에 강압적으로 몇차례 돌리니 혈육의 정은 되살아나고 뿌리를 되새기는 분위기는 더욱 조성되어 선조의 산소를 찾은 후손들의 마음은 마냥 훌훌하기만 하더라.

다만, 오늘의 행사에 안내가 수반되었으면 錦上添花(금상첨화)가되고 앞으로 위선에 더욱 관심을 갖었으면 하는 마음, 비록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대중회장)

### ※이날 참배한 선조산소

10세 서산공-11세 해주목사공-12세 풍천부사공-13세 장사랑공 14세 통정대부공-15세 양성현감공-16세 중화부사공  
17세 사헌부지평공-18세 휘규공-19세 대사헌공등 10대에 걸친 산소



※10세 西山公선조 묘 참배관경

(순창조씨문중의 실존하는 최고선조의 묘소이며 “柱”형 열기중 19대조고의 묘이다.)



리에 뜻이 없어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오직 도를 구하는 학문으로 조선명신록에 등재된 명신이다.

20세 젊은 나이에 天命圖解(천명을 논하는데 상편은 천지의 理와 氣(태극과 음양)를, 중편은 마음과 천성을, 하편은 인물을 각각 풀이함)를 저술하였다.

“心如清水”(마음은 맑은 물과 같다)를 가문의 법도로 후손에게 전해왔다.

참고 1. 단양과의 직조로서 29세손 仍, 尚, 丙 항렬기준 8대 조고이다.

2. 自作詩 # 1 ~~杜(우)~~ ~~杜(우)~~

歌呼~~白~~酒白, 漁釣~~海~~眉蒼  
(노래를 부르노라니 ~~白~~은 희고, 고기잡고 낚시질하다보니 ~~眉~~는 짙어가네)

3. 自作詩 # 2

山鹿老大白於雲 穩臥蒼岩度多嘆  
我有茅廬無俗客 夜來簷下可客君  
(산의 늙은 큰사슴은 구름보다 흰데 편안히 바위에 누워서 황혼을 지내네 나는 초가집은 있으나 손님이 없으니 밤이되면 처마밑에서 그대는 쉬어 갈 수 있으리)

자는 允執이다. 철종 2년(1851) 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하고 백약이 무효인고로 자신의 손가락을 찍어서 피를 흘려 입에 넣어 소생시켜 천수를 누리게 하였다.

철종 3년(1852)에는 자신이 득병하여 위독하니 부인 平澤林氏가 역시 양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마시게하니 孝子門에 烈女가 탄생한 것이다.

고종 25년(1888) 孝로 인하여 通訓大夫 司憲府 持平이 증직되고 정문을 내리는 특전이 있었다.

참고: 송헌과(趙用夏 후손) 29세손 “柱”항렬기준 6대 조고이다.

28 지육적인 한일합방으로 관직을 버린 26世 趙東善(1861~1925)

자는 德魯이며 호는 晚霞이다.

광무 10년(1906) 通津郡守에 이어서 다음해 金浦郡守를 역임했으나 1910년 일본의 강압으로 지육적인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관직을 버리고 향리에서 망국의 한을 달래며 세상과 인연을 끊고 여생을 보냈다.

참고: 여주파(趙東善 후손) 29세손 丙, 變항렬기준 증조고이다.

29 족보를 최초로 발행하고 爲先事業에 힘쓴 22世 趙重參(1747생)

자는 景魯이며 생부는 趙昌益(행정)이다.

순조 2년(1802) 유사이래 처음으로 순창조씨의 壬戌譜를 발간하였다. 정조 16년(1792) 西山(10世 趙駿) 선영 개봉 축시에는 공전 160금을 마련하여 양주군 강흥면 가마동에 는 13두락과 밭 하루가리를 위토로 봉하였다.

참고: 가주파 직조로서 29세손 “柱” 항렬기준 7대조고이다.

26 孝로서 通政大夫 司憲府掌令에 증직된 25世 趙福煥(1762~1814)

자는 季綏이요 호는 瑞堂이다.

영조 18년(1742) 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한 와중에 의사는 “다른 약은 없고 제비고기만 있으면 회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나 때는 영동설현이었다.

하염없이 하늘을 부르짖으면서 축수하였든바 홀연히 한마리의 제비가 눈을 맞으며 집으로 들어와 이로운해 어머니를 구하니 공의 호를 瑞堂(상스런 제비란 뜻)이라 하고 유림에서 향천하여 孝로서 通訓大夫 司憲府掌令을 증직하였다.

고: 안촌파의 직조로서 29세손 “柱”항렬기준 조조가 된다.

27 손가락을 찍어서 아버이를 구한 孝子 23世 趙用夏(1810~1859)

철충사제례, 유적비제막 이사회개최 안내

1995년 4월 1일(토) 11시에 충북 괴산 철충사(괴산읍에서 차량으로 5분거리) 현장에서 철충사제례 및 유적비제막식과 순창조씨 대중회 이사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종친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교통편 1. 지하철 2호선 강변역 하차,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괴산행 버스 수시발차
- 2. 청주시의 버스 터미널에서 괴산행 버스 수시발차

제 2 차 회비 수납 안내

1. 1994년과 1995년(2년분)의 회비를 이달부터 수납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비내용은 년회비(2년분) 10,000원과 주소록발행 및 우송비등 포함해서 10,000원 계 20,000원을 징수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3. 제 1 차 회비(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4년분) 20,000원을 현재까지 미납하신분은 이번이 합산 해서 40,000원을 납부 바랍니다.

4. 생활근거가 없는 미혼자 및 아버지를 직직 모시고 있는  
만아들은 회비 면제 대상이 됩니다.
5. 송금시에는 반드시 이름앞에 파(派)를 명시해야 장부정  
리가 가능합니다. (동명이인이 많아서 파를 명시하지 않  
으면 확인할수 없음)  
따라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송금전표를 쓸때 송금자  
명의란에 이름만 쓰지 말고 꼭 파(派)를 이름 앞에 같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에” 행정과 덕선

송금구좌 우체국: 011775-0046769-11

국민은행: 025-01-0315-181 조덕선

6. 대중회 회관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에 뜻을 같이  
하시는분은 십시일반으로 적극협조하여 우리의  
숙원이 하루속히 성취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4” 재정 결산보고

#### 1. 총괄표

시일	구분	수입	지출	잔금	이월금	비고
93. 2. 28					19,114,147	종보1호참조
93. 3. 1~94. 2. 28		20,004,475	5,899,960	14,104,515	33,218,662	종보1,4호참조
94. 3. 1~95. 2. 28		7,638,880	2,567,552	5,071,328	(38,289,990)	

※현금 3천만원은 한국투자신탁에 정기예금(95. 5. 9 만기) 하였음.

#### 2. 수입과 지출 명세표 (94. 3. 1 - 95. 2. 28)

일시	수입지출명세	수입	지출	잔고	비고
94. 4. 30	이자(자동차보험)	2,260,000			
6. 1	회비및찬조금 94. 3. 1~94. 5. 30	565,000			종보5호참조
〃	문헌록대금(괴산종친회장)	600,000			
9. 1	회비 94. 6. 1~94. 8. 31	205,000			종보6호참조
〃	족보대금	300,000			
12. 1	회비 및 찬조금 94. 9. 1~94. 11. 30	1,715,000			종보7호참조
95. 3. 1	회비 94. 12. 1~95. 2. 28	1,250,000			종보8호참조
〃	이자(투자신탁)	743,880			
94. 3. 16	상가 조화	100,000			
3. 24	종보 제4호 인쇄 및 발송비		300,000		
3. 30	족보 우송료		37,552		
6. 22	종보 제5호 인쇄 및 발송비		250,000		
9. 16	종보 제6호 〃 〃		330,000		
11. 3	차량임대료(괴산시제)		100,000		
11. 13	경사 화환		100,000		
12. 22	종보 제7호 인쇄 및 발송비		350,000		
95. 2. 6	유적비건립보조		1,000,000		
	합 계	7,638,880	2,567,552	5,071,328	

#### 회비를·보내주신 종친 (94. 12. 1-95. 2. 28)

평택파: 병순(40,000)·동기, 영기, 왕기, 병택,  
용목, 용화, 병창

지곡파: 병근

가주파: 연주, 택주, 병하, 영식

지평파: 병옥(50,000) 병택(50,000)

이안파: 구식

탑동파: 우식, 영식, 한주, 홍식(40,000),  
태홍(30,000)

팔송파: 병옥, 중식(80,000)

청주파: 응식, 경석, 태린

소암파: 철주, 태식(30,000) 병식(30,000)

품곡파: 태호, 태형, 현기

삼고파: 춘식(30,000) 현식(30,000) 단식(30,000) 변식  
(30,000) 용주(30,000) 성주(30,000) 현득(30,000)  
현백(30,000) 현수(30,000)

※과불명자: 현기(94. 12. 16 국민은행) 병철(94. 12. 21  
우체국)

〃 춘식(95. 1. 5 우체국) 영준(95. 2. 7 우체국)

※이름불명자: 삼고파 조병? (94. 12. 21 우체국 50,000원)

4602  
계 1,250,000원